

# 호남 중심 통합 거센 반대...전당대회 험로 예고

안철수, 통합 전당원 투표 제안...향후 일정과 전망

케이보팅 온라인투표·ARS 투표 방식... 이달말 결과 발표

일부선 “전당원 투표 당헌 당규 위반 가처분 신청 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전(全)당원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통합 선언으로 해석된다. 의원들의 전폭적 동의를 받아 통합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전당원투표를 통해 통합 추진의 동력을 얻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당대회라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통합이 성사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향후 일정=안 대표 측은 속도감 있게 전당원투표를 진행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 대표 측은 지난 8·27 전당대회 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투표와 ARS 투표 방식으로 전당원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 대표 측은 전당원투표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올려 통과시킨 뒤 오는 27~28일 케이보팅 온라인투표, 29~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안 대표는 이를 위해 21일 당무위를 소집해 전당원투표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선거관리 위탁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무위는 100명 안팎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전당원투표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전망=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통합을 하려면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합당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이날 안 대표가 실시하겠다고 밝힌 전당원투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돼있지 않은 일종의 여론조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단, 통합 반대파가 전당원투표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투표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전당원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당원투표가 실시되면 ‘통합 찬성’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안 대표는 최근 “호남 이외의 지역의 경우 통합 찬성 당원들이 90%”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당원투표가 실시되고 ‘찬성 우세’ 결과가 나오더라도 통합까지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달 중순에야 전당대회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기가 나오고 있다. 반대파의 저항에 부딪혀 전당대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기석 대표비서실장에게 안철수 대표의 의원총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극에 달한 갈등으로 전당대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결국 물리적 충돌이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전당대회가 무산되면서 통합 결정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표직 반통합파이자 국민의당 전당대회 의장인

이상돈 의원도 이날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의 전당원투표 제안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이라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당대회가 되겠느냐. (성원) 6000명이 오겠느냐. 만약 안 대표 쪽에서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아마 성원 미달로 산회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전당대회가 열려 통합 의결에 성공할 경우 분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당대회가 무산되면 또다시 당은 혼란 속에서 통합 찬성·반대파 간에 중재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가 무산되면 통합 의결이 안 되고 그러면 그 후 타협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 대표 자진사퇴 촉구’ 총의 모아

### 국민의당 의원총회

20일 오후 소속 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민의당 의원총회는 안철수 당 대표를 성토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송기석·권은희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이의가 있었으나, 의원들은 격론 끝에 ‘안 대표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국민의당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안 대표가 의총을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격적으로 전(全)당원투표를 제안한 것이 의원들을 크게 자극한 것이다. 나아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의총장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안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원들은 더욱 격양됐다.

“의총 소집하고 기자회견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정동영 의원), “끝고라도 오라”(유성엽 의원)는 등 강한 항의가 의총 시작 전부터 나왔다.

송기석 의원, 권은희 의원이 “말씀 가려서 하라”고 큰소리했지만 다수 의원들의 분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4시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의원들은 안 대표를 향해 통합 추진 중단 및 당 대표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들은 또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결국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동영 의원의 경우 “오후 2시 의총이 소집된 것을 알면서도 오전 11시에 알박기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안 대표는 오늘도 대표 자격을 잃었다. 식물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의원은 “안 대표가 당원과 국회의원들에게 통합의 ‘홍’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사기를 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이 의원들의 총의에 대해 ‘성원이 되지 않았다’,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결은 아니지만, 다수 의원들의 뜻이 모인 것은 분명하므로 의원들의 총의가 맞다’고 확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내일의 행복 내일의 연금

### 사학연금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사립학교 교직원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사학연금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어가는 신뢰받는  
연금서비스기관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사학연금**  
www.tp.or.kr

## 인간도 신처럼 수명을 제어할 수 있을까



김은영의  
그림 생각'

(208) 호모 데우스



미켈란젤로 작 '아담의 창조'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후속작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에서 인간이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후 인류의 다음 목표는 “별명,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고 예측한다. 인류가 오랜 세월 시달려 온 기아, 역병,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지연과 수명연장이 될 것이고 이러한 답은 인류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대수명 150세를 꿈꾸는 오늘날, 저자의 역설처럼 인간 자신이 생물학적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신처럼 제어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고 부연하기도 한다. 그는 한 발 더 나가 다가오는 미래에 초고속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융합 등 혁명적인 신기술이 초지능적 네트워크를 창조하고 그것이 권위를 갖게 되면 우리들의 신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는 도발적인 상상을 전개한다. 신과 창조를 바라보는 시각의 대 전환인 셈이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웅대하게 보여주는 창조 순간은 예술이 빛어낸 다른 차원의 신성

을 바라보게 한다. 미켈란젤로(1475~1564)가 시스티나 성당에 그린 천장과 중 '아담의 창조' (1510년 작)는 '창조자의 출현'을 신랄한 거장의 솜씨로 묘사하면서 창조주로서 신의 진정한 모습을 만인에게 각인시킨 작품이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답게 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지에 기대어있고 반대편에서는 창조주가 천사들에 감싸여 다가오고 있다. 창조주가 손을 뻗치고 아담의 손가락에 스치듯이 닿으려는 찰나를 포착한 '아담의 창조'는 상상 속 신의 전지전능함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당시에는 미술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의 하나로 꼽혔었다.

“신은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은총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름다운 인체, 내가 사랑하는 이 인간의 몸에서만 신의 은총을 볼 수 있다. 신은 바로 이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이 글과 그림을 통해 수백 년 전 이미 '호모 데우스'의 출현을 증명한 것 같다.

<광주 비엔날레 광주풀리부장·미술사박사>